

전북

군산 자유무역지역 100% 분양

2014년 업체 풀가동... 2조4천억 생산효과 기대

군산 자유무역지역이 대규모 전력 매개요트 생산공장의 유치에 힘입어 설립 5년만에 100%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손경윤)은 2일 군산시 소룡동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김판주 지사와 문동신 시장, 손경윤 관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전용차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군산자유무역지역은 2005년 10월 조성 이후 5년 만에 100% 입주가 완료돼 명실 공히 전북권 내 대표적인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현재 이곳에는 15개 외국인투자기업이 포함해 총 29개 업체가 입주 준비 중이거나 가동 중인데 모든 업체의 정상 조업이 이뤄지는 2014년께는 연간 2조4천억원의 생산 효과와 15억 달러 상당의 수출이 기대된다. 손 원장은 "지난해 2월 50%에 불과했던 입주율을 2년 만에 10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타깃기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무상임대 등 임대 조건을 내걸며 업체 유치를 총력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인공섬에 18선석 규모 개발 새만금 신항만 내년말 착공

새만금 지구를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데 필수 인프라(SOC)인 새만금 신항만이 내년 말에 착공된다. 전북도는 "국토해양부가 오는 2030년까지의 새만금 신항만 물동량과 개발선석 규모 등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입찰 방법 심의와 설계역역 계약을, 내년 초에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2030년 완공 年 1774만 물동량 처리 3조764억원 생산유발·2만2400명 고용창출 세계 물류 집합소...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 발판

기 위해 1982년 고군산지역 신항만 입지조사를 시작으로 1995~199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신항만 건설 및 예정지역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조사를 유보했다. 2003년 정부 방침에 따라 2001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신항만 건설사업은 그동안 두 차례나 유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후 전북도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개발을 건의했고 곧바로 새만금 신항만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다. 이후 새만금 신항만 건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지난해 간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기본계획이 착수됐으며 올해 기본 계획이 고사됐다. 첫 조사에서 착공까지 30년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신항만은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20~45m의 깊은 수심을 유지해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고 거리단축에 따른 물류비가 대폭 절감돼 부산이나 전남, 충남 등지의 대 중국 물동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의 신흥 경제중심으로 부상한 청도항과 부산항까지의 거리(900km)보다 가까운 580km에 불과하고 수심도 청도항(11~16m)보다 깊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도록 세계 물류의 집합소가 될 전망이다. 또 계획대로 신항만이 내년말에 착공, 2030년까지 매년 1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신항만 건설의 부가가치는 항만투자건설과 항만 운영으로 3조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4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김판주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만개발로 말미암은 물류비 절감 효과는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에서 착공까지 30년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신항만은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20~45m의 깊은 수심을 유지해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고 거리단축에 따른 물류비가 대폭 절감돼 부산이나 전남, 충남 등지의 대 중국 물동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광주시기자 knews@kwangju.co.kr



웃음 꽃피는 사랑의 연탄배달 고창군 자원봉사자(소장 김복동)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센터는 이달 말까지 14개 읍·면 소외계층 28가구에 1만1000여장의 연탄을 배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

새만금 관련사업 관할권 소송여파 다기능부지 명소화 중단 위기

김제시와 부안군이 지난 1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가 군산 관할로 결정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기능부지 명소화 등 관련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새만금 신항만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한복판인 3호 방조제(야미도~신시도)와 맞닿은 다기능부지를 해양레저와 숙박단지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정산단과 비슷한 1.95km 넓이로, 오는 6월까지 민간투자자 제안서를 받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달 17일 행정구역 관할이 군산시로 확정 고시하자, 연내준공을 목표로 측량작업을 끝낸 데 이어 소유권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 준공처리와 함께 소유권을 등기해야만 투자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형식으로 사업부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

원에서 가져온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 같은 개발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소유권 등기는커녕 준공조차 할 수 없어 투자자를 모집했자 땅을 내줄 수 없다. 특히 매립공사가 한창인 군산지구 산업단지와 부안지구 관광단지, 대규모 영농회사 개발사업자가 선정된 김제지구 농업용지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가져분이 인용되고 보안 소송이 장기화되면 주변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문제로 무적(無籍) 개장한 부산 신항만, 또는 수년간 공장을 착공치 못한 울촌산단의 전철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을 넘어 고군산군도 전역에 대한 관할권 반환 소송까지 앞서 예고한 상태다. <전북취재본부=광주시기자 knews@

"억대 부농을 키워라"

임실군 '1·1·4 프로젝트' 임실군은 민선 5기 장기 농업발전 계획으로 4년 이내에 연 1억이 넘는 농가소득 1000 농가를 육성하는 '1·1·4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14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총 40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의 조기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관내 8000여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조사를 진행, 농가 DB를 구축해 농가별·소득별·작목별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가별 맞춤형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농업 혁신리더를 선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

남원, 명품 멜론 생산 양액재배·시설 현대화

남원 멜론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 금지·주생·송동 일대 130 농가(43ha)에서 멜론을 재배, 연간 6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11월말 현재 일본, 동남아 등에 198t을 수출, 3억9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남원지역은 섬진강과 요천 주변 사질양토의 자연환경과 함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3기작이 가능한 최적 생산지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멜론을 지역특화 전략작목으로 지정, 집중 육성에 왔다. 시는 올해부터 멜론 양액(養液)재배와 시설 현대화, 수출단지 육성을 본격 추진하는 등 명품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에서 생산된 멜론은 재배 초기인 지난 2006년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출품돼 '10대 베스트 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박선지기자 bs8787@

Table with 2 columns: Posi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光州日報 전북취재본부. Includes names like 김복동, 조종욱, 박근석, 서은종 and phone numbers.

GG경매 컨설팅(주)

Table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 Includes sub-sections for '근린시설·근린상가/주요소' and '속박시설'.

Table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상가주택', and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Moder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Real Estate Broker). Features '토지 급 매매' (Land Sale) and '광산구 토지 매매' (Gwangsan-gu Land Sale) with detailed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land Real Estate Broker). Features '건물(임대용,투자용)' (Commercial/Investment Buildings) and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Sangmu New District Commercial/Industrial Land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sim Real Estate). Features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del Bathrooms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and '장점' (Advantages) list.